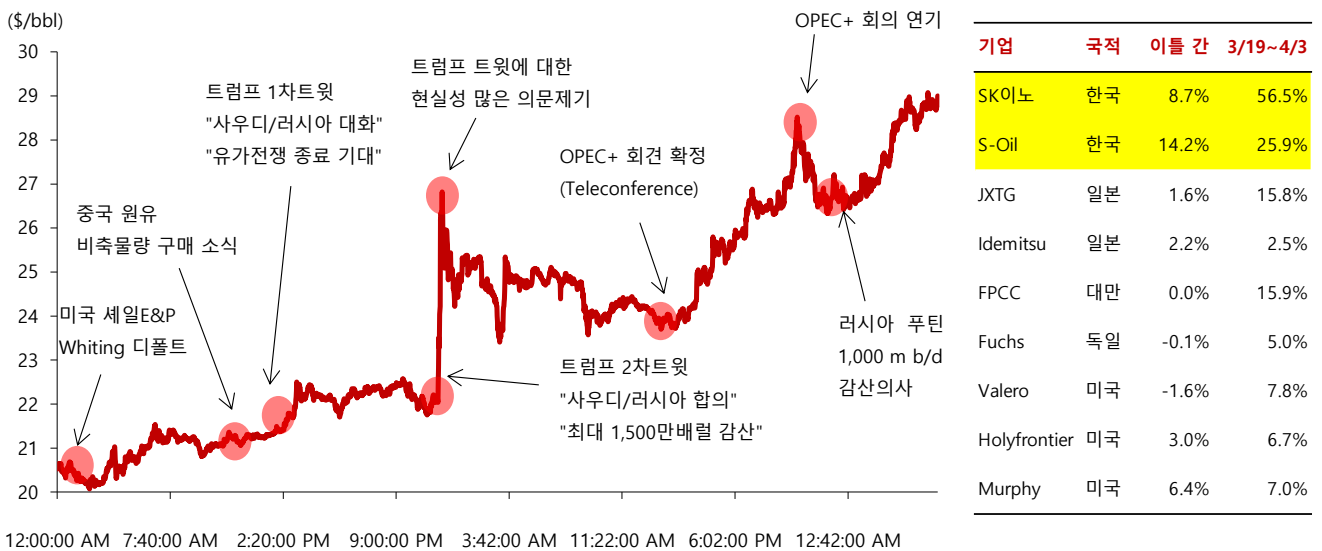


4/9 OPEC+ 긴급회의와 국내 정유주

▶ 트럼프 두 차례 트윗 다음 날도 유가 급등. 이들 간 WTI +39.5%. 결국 4/9 OPEC+ 긴급회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유가 향방 잡힐 것. 단 지난 이들 그리고 약 2주 간 글로벌 peer 대비 크게 아웃퍼폼한 국내 정유주는 이미 부담

4/2 자정 이후 WTI의 분봉 상 이벤트 분석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- 유가가 이들 연속으로 급등했습니다. 4/2 트럼프의 트윗 두 번으로 인해 급등을 했는데, 4/3에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긴급 OPEC+회의가 열리기로 하면서 또 다시 급등이었습니다. \$20.3/bbl → \$28.3/bbl로서 무려 +39.5%군요
- 이들 째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푸틴이었습니다. OPEC+ 긴급회의가 예정보다 늦은 4/9에 열리게 되자 “합의가 원만치 않은 것 아니냐”라는 의혹 속에 하락 전환했는데, 이후 푸틴이 “1,000만b/d 감산 논의 가능하다”라고 발언하며 재차 급등 전환하였죠
- 트럼프가 사우디/러시아에 요구했던 1,000~1,500만b/d 감산이 이뤄지면 전례 없는 감산 규모 (세계 산유량의 약 10%)이고, 실제 이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합의 발표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유가는 강세가 갈 만한 요인이니까요. 대단한 발언이긴 했죠
- 아직 결론을 전혀 점칠 수 없는 국면이기에 결국 4/9 회의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1,000~1,500만b/d 규모가 가능할 지, 공급과잉 주범인 미국은 감산 없이 타국가들 만의 감산이 말이 되는 지, 사우디가 증산 정책을 또 바꿀 지 예단이 쉽지 않으니까요
- 다만, 추가 측면에서는 고민이 듭니다. 국내 정유주 말이죠. SK이노/S-Oil은 지난 이들 간 각각 +8.7%, +14.2% 급등했습니다. 게다가 3/19 이후로는 +56.5%, +25.9% 급등인데요. 동 기간 글로벌 정유업종 peer과 비교해보면 outperform이 매우 심합니다
- 가장 산업이 유사한 일본 JXTG(+1.6% / +15.8%), 이데미쯔(+2.2% / +2.5%), 미국 Valero(-1.6% / +7.8%)일 정도입니다. 이들은 유가 반등보다 코로나19/공급과잉에 따른 정체마진 약세가 더 우려 중인데요. 과연 국내만 이렇게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?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•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• 투자권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